

남북통합문화센터, 북한이탈주민작가 '심수진'의 〈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고〉 특별전시 진행

-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한이탈주민 화가 심수진의 〈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고〉 전시를 7월 2일(수)부터 1층 특별전시관에서 진행 중이며, 10월 18일(토)까지 진행할 예정이다.
 - 심수진 작가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한 후, 병마와 싸우면서 도자기·낙엽·한지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회화작품을 그려왔다.
 - 이번 전시 〈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고〉에서는 심수진 작가가 '삶의 시련을 딛고 피워낸 생명·회복'의 서사를 담은 회화작품 23점을 선보인다.
 - 작가는 분단의 아픔을 크랙 기법*으로 시각화하고, 그 위에 피어난 꽃을 통해 삶의 균열 속에서도 피어나는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.
- * 크랙 기법 : 작품이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갈라진 듯 표현하여, 고전적이고 예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표현하는 방법
- 특히, '꽃'과 더불어 '달'을 모티프로 하는 〈달의 이야기〉 연작 12점은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작품이다.
 - 달 속에는 연날리기, 그네타기 등 남북한이 함께 즐겼던 전통놀이 장면을 삽입하여 기억과 치유, 문화 정체성의 메시지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.
 -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작가들의 특별 전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작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, 예술을 통한 남북 출신 주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.

- 붙임 : 1. 작가 약력
 2. 포스터
 3. 전시 작품

담당 부서	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	책임자	과 장	하무진 (02-2100-5920)
			센터장	이지연 (02-2085-7300)
		담당자	주무관	이영주 (02-2085-7303)





심수진

- 1978 함경남도 출생
- 1995 학교대표필사, 명필가
- 2007 한국 입국
- 2017 대한민국서화비엔날레 은상, 특선, 입선
- 2021 MBC 금강미술대전 특선
- 2022 국제현대미술대전 특별상
- 2023 문화예술유공 통일부장관 표창

◆ 학력

- B.F.A. 서울디지털대학교 회화과 미술학사(2018)
- (사) 한국미술협회 고양지부 심사위원, 정회원/한국서사협회 추천작가

◆ 전시 이력

- 2025 초대전 <통일과 평화의 색으로 번지다>, 롯데재단, 마루아트갤러리
- 2024 초대전 <기억의 지도>, 서울시민청
- 2024 초대전 <비로소 꽃을 피우다>, 광재선문화재단 갤러리선
- 2024 초대전 <선을 넘어온 이야기>, 오두산 통일전망대
- 2024 개인전 <고난 후에 피는 꽃>, 청주 한국공예관
- 2023 개인전 <과거 현재 미래>, 예술의 전당
- 2023 개인전 <꿈, 여행>, 혜화아트센터
- 2023 개인전 <통일을 원하다>, 엠 갤러리
- 2022 개인전 <자연의 아름다움>, 카페 63
- 2018 개인전 <추억과 새로운 느낌>, 대전 중구문화원



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심수진 展

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고

2025. 7. 2. - 10. 18.

남북통합문화센터 1층 특별전시관

관람시간 | 화~토, 10:00-17:00

(법정·임시공휴일 휴관)

주 최 |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

주 관 |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

문 의 | 02-2085-7327

<http://www.uniculture.unikorea.go.kr>



황금빛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

91 x 65.1cm, 캔버스에 아크릴, 2025

신작 연작 <달의 이야기> 시리즈 중 하나로,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과 이를 비추는 달, 그 속에 어린 시절 그네타기의 장면을 담고 있다. 시간과 기억, 흔들리면서도 계속 살아가는 생명을 표현한 작품이다.



겨울밤 단풍과 연

91 x 65.1cm, 캔버스에 아크릴, 2025

깊은 남색의 겨울밤을 배경으로, 붉은 단풍 위에 소복이 쌓인 눈과 달 속에 비친 연날리기 장면이 대비되는 작품이다. 눈이 오는 날에도 색을 잃지 않은 단풍을 통해, 한겨울에도 식지 않은 기억의 온기를 담고 있다.



가시넝쿨 여인

75 x 65.1cm, 한지, 천, 보리줄기, 2015

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담아 10여 년간 병마와 싸울 때의 고통과 절망을 표현한 초기 작품으로, 작가가 겪어온 생의 상처를 나타낸다. 보리 줄기와 같은 자연소재를 탐색한 계기가 되었다.